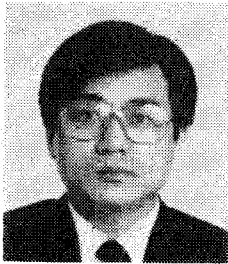


辨理士

나는 이렇게 해서 合格 했다



이 권 희
〈第25回 辨理士試験合格者〉

最近들어 우리나라에서도 特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企業의 大小를 불문하고 權利에 대하여 민감해져 出願이나 異議申請등이 증가되고 라이선싱 業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時代에 企業間의 競争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獨占權을 확보하거나, 他社의 獨占權에 대한 對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特許管理가 必要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技術競争이 극심한 社會에서는 特許管理의 良否에 따라 企業의 存亡이 左右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企業의 特許管理要員은 물론 一般人들의 辨理士試驗 希望者들이 부쩍 늘고있다.

이에 本誌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辨理士 試驗에 合格한 3인의 合格手記를 3회에 걸쳐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지나간 일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번거롭고 감정에 치우쳐 자신을 미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생각에 “합격기”라는 제목의 거창한(?) 글을 쓰기가 공연히 쑥스럽고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걸어온 서른다섯해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으며 살아온 평범한 이야기기에 저와 같은 길을 가시는 분들에게 공부하시다가 머리를 식히실 때 조그마한 휴식거리라도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자 적어 볼까 합니다.

二

변리사라는 직업은 아직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 시험에 대한 인식도 아직 넓지 못하기 때문에 변리사시험에 도전하고, 변리사라는 직업에 자신의 인생을 몰올려면 남다른 직업관과 직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리사시험에 대비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먼저 제가 이 방면으로 종사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우등상장이나 받던 소년치고 판사에의 꿈을 안 가진 적이 없듯이, 저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혼한 미팅(?)한번 못한채, 꿈도 이루지 못하고 대학생생활을 마쳤습니다.

졸업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중도에 포기한 채,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남보다 늦게 시작한 군문인지라 남다른 경험이었고 시련이었기에 제대하자마자 책을 싸들고 도시판에 들어가는 만용(?)을 부려 보기도 했지만, 주위의 모든 여건이 그대로 공부를 계속하도록 조성되지 않았기에, 사법시험준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모은행시험을 치렀고 다행히(?)합격이 됐고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고객들과의 대화, 전표정리,

돈세기등에 적응이 잘 안됐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일년 새개월만에 사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항상 용기와 격려를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은행생활의 소득이었습니다.

은행 사직후, 이왕 사회생활을 할 바에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일 수 있는 회사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포츠용품회사인 H 기업에 입사를 했고, 여기에서 무언가 가슴 속에 들어 있던 답답함을 풀어 보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으나, 일년여의 세월이 가면서 또다시 방황을 하게 되었고, 제 자신의 영역이 있는 직업, 무언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회사의 상표관리업무가 저에게 주어졌고, 대리인인 모특허사무소를 드나들게 되었으며, 현재는 개업중이신 K변리사님을 알게 된 것이 제가 공업소유권계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법학을 전공한 저도 그때까지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K변리사님의 자상한 안내와 여러가지 말씀으로 변리사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강만호기심과 함께 이 업계로의 진출이 저 자신이 찾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한 곳에 정착치 못하고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저에게 항상 힘을 주던 아내의 격려로 변리사시험 준비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험을 본다고 마음은 굳혔으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몰랐기에, 그래도 특허업계에 들어가서 실무를 익히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하여 K변리사님의 도움으로 모특허사무소에 입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三

84년 9월, 특허사무소 직원으로 특허업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한가지 한가지 일들이 생소한 것들이었지만 일에 대한 흥미와 애착을 갖고 실무를 대하니, 일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상표와 의장에 관한 실무를 익히게 되

었고, 변리사시험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회사 일을 해야했기에 저녁에는 피로하다는 핑계로 공부를 못하는 날들이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라도 마시면 일주일 정도가 그냥 지나가 버리기가 일쑤였기에, 처음 응시한 86년 제23회 시험에서 상표업무담당자가 상표법에서 과락을 하는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처음 응시를 했던 것이었고, 변리사시험이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합격한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막상 떨어지고 나니 섭섭했고 상표법이 과락만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몇개월 위로주(?)로 세월을 보내고 제24회에는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그간 제가 공부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장생활과 수험공부를 병행해야하는 저로서는 무엇보다 일정한 공부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에, 첫째는 생활을 단순화하여 집안의 행사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둘째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의 활용을 잘 할 것을 생활 지침으로 정하고, 하루 일과는 오후 6시경 퇴근하여 식사후 아이들과—귀여운 아들과 딸이 있음—한시간 가량 놀고 9시경에 취침하여 새벽 2~3시경에 일어나서 아침 6~7시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되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까지 자버리고는 공연히 아내에게 깨우지 않았다고 짜증을 부리곤 했으나,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런대로 적응이 되어 아내의 도움없이도 일어날 수 있었고, 조용히 서너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공부하고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집 근처 독서실에서 일주일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고 일주일 공부할 것을 계획하는 일주일 단위의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몇개월 지속하고 나니, 제 자신의 계획대로 공부가 꽤 갔고 시험에 대한 자

신감이 생겨 났으나, 한가지 제가 일본어를 못했으므로 일본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몇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서적을 볼 여유는 없었으므로,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책과 법조문 암기에 좀 더 철저를 기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불안을 떨쳐 버리려고 했으나, 이 불안감은 시험장에서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수험생은 일본서적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일본서적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서적을 못 읽으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불안해하실 것없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서너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공휴일에 열서너시간 보충을 하는 생활을 계속하니 어느정도 교과서와 법조문 암기가 됐다고 생각되어 시험 2개월정도를 앞두고는 각 과목 단권위주로 총정리를 하면서, 문제가 될듯한 것은 모두 모범답안을 만들어 직접 모의시험지에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대로 건강도 유지된 편이었고, 공부도 나름대로 조금은 됐다고 생각하고 응시한 제24회 시험이 었지만, 시험첫날 특허법의 “물질특허” 문제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물질특허”는 출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문제여서 정리를 제대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망설여졌고, 법조문중에서 관계된 조문과 방법특허등 관련용어를 연결해서 답안지를 작성했지만, 이 문제가 발표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던 복병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2차 준비를 못한 채, 시간을 보냈고 다행히 1차합격을 하였지만, 2차까지 20여일 남은 기간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배려도 20일간 휴직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행정법”과 “인사소송법”—2차시험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제24회 1차합격으로 만족한 채 87년을 보내고 88년을 맞이하여, 전해보다는 약간은 느긋한 마

음이 되어서 긴장된 생활을 못하고 몇개월을 보내고 나니, 마음의 불안감과 함께 더구나, 시험제도가 변경됐으므로 이번에 반드시 2차를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공부하는 안되고 초조한 마음만 더해갔습니다.

제가 선택한 “행정법”과 “민사소송법”은 공부할 분량이 많았고,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변경된 시험대로 제25회 1차 합격자가 256명이 되고, 전해 1차 면제자가 21명이었으므로 마음의 부담감은 더해갔고, 급기야는 2차시험 50일전에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이번에 불합격한다면 변리사시험을 완전히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배수진의 마음으로 유난히 무더운 작년 여름을 독서실 구석자리에서 보냈고,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되어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四

한 인간이 아무리 조그마한 목표일지라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에 약간 먼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죄(?)로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겸하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마음가짐

나 자신은 반드시 합격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즐기시기 바라며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시작하실 것.

(2) 공부시간

저의 경우처럼 새벽공부도 괜찮고, 하여튼 하루에 서너시간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고 틈틈히 쪼개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것(출퇴근시간 점심시간등)

(3) 공부방법

누구의 어떤 방법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구미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험 1~2개월 전에는 문제를 직접 모의 답안지에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

(4) 필요한 책

일본서적을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국내 나와있는 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단 책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종합해서 자기나름의 단권화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5) 답안 작성 요령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를 몇번 읽고 문제의 정확한 이해와 출제의도를 생각해 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초안지를 이용한 기초답안을 작성한 뒤에 답안을 작성하고, 될수 있는 대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법조문끼리 관련을 맺어 주도록 노력할 것.

五

시험공부를 시작한지 만 3년이란 세월이 걸려

겨우 합격한 주제에 합격기를 적는 것이 건방진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인생도 있구나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주시고, 티끌만큼이라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 합격기를 쓸 수 있는 것은 한군데 직장에 정착치 못하고 방황할 때 항상 곁에서 힘을 주던 아내, 일요일아침이면 “아빠! 오늘도 독서실 가!”라는 인사를 하던 사랑스런 재영과 주영, 여러가지로 도와 주던 L형, H형, K변리사님등 주위의 모든 분들의 도움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펼쳐질 저의 인생을 사랑하며, 변리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일층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국내 最初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集大成版 간발

1948年 政府樹立時부터 1987年末 까지의 工業所有權關係 大法院 判例를 各權利別 上告番號順으로 整理하여 加除式으로 엮었음.

I. 構成

各 權利別 4卷과 別冊 附錄으로 構成되어 있음.

- 1. 特 許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拒絕不服, 其他
- 2. 實用新案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拒絕不服, 其他

- 3. 意 匠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拒絕不服, 其他
- 4. 商 標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取消, 拒絕不服, 其他
- 5. 附 錄 I : 總索引, 抗告番號順 對照表, 審判番號順 對照表, 條文別 主要判例要旨

II. 體 制 : 4.6倍版(公報크기, 가제식)

III. 紙 質 : 內紙 (미색모조

80g), 表紙(포크로스)

IV. 收錄件數 : 1,600餘件(1948~1987)

V. 內 容 : 全文掲載

VI. 總 面 數 : 3,200餘面

VII. 販賣價格

一會 員 : 90,000원

一非會員 : 110,000원

※ 其他 : 詳細한 內容은 調査資料部(555-6892)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 발 명 특 허 협 회 신 간 안 내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규격 : 국판 240면
가격 : 3,000원

—발명의 발상기법 총망라—
발명인의 길
규격 : 국판 200면
가격 : 2,000원

—발명 특허 실시 가이드—
발명인의 세계
규격 : 국판 200면
가격 : 2,500원

판매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전화 : 568-8263)